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일시 (인터넷) 2026. 11. 24.(화) 11:00
(지면) 2026. 11. 25.(수) 조간
배포 2026. 11. 24.(화) 06:00

해양수산부, 2028년 유엔해양총회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글로벌시티즌'과 업무협약 체결

- 유엔해양총회 계기 문화 행사, 시민 참여 프로그램 공동 모색 등을 위한 협력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11월 25일(수) 오후 1시 30분에 해양수산부에서 국제 캠페인 단체 '글로벌시티즌'과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글로벌시티즌은 각국 정부, UN, 기업, 예술인, 시민사회 등과 협업하여 빈곤 종식과 기후 위기 대응 등을 위한 시민 행동을 촉구해 온 국제 캠페인 단체다. 작년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와 연계해 5만여 명이 참여한 '글로벌시티즌 페스티벌 : 아마조니아(Global Citizen Festival: Amazonia)'를 개최하고, 아마존 보호를 위해 10억 달러 이상의 재정 공약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 의사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향후 제4차 유엔해양총회와 연계한 문화 행사,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협약 체결을 위해 방한한 사이먼 모스(Simon Moss) 글로벌시티즌 공동 창립자 겸 최고운영책임자(COO)와 11월 24일(화) 사전 면담을 갖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유엔해양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해양환경·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활용)'의 이행을 위해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해양 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이다. 2028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에는 193개 UN 회원국과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공식 등록 참가자 약 2만 명을 포함하여 총 10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2028년 유엔해양총회는 2030년 이후 국제사회 해양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중대한 기회다."라며, "전 세계 청년과 시민사회가 유엔해양총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유엔해양총회준비기획단 기획총괄팀	책임자	팀 장	이상길 (051-773-6802)
		담당자	서기관	김지현 (051-773-680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자유이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